

기독교 학문연구에서의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탐구* **

이종원(숭실대학교 교수)

I. 서론

II. 연구윤리와 연구의 진실성

III. 기독교 학문연구에서의 연구 부정행위의 유형

1. 표절
2. 중복게재(redundant/duplicate publication)
3. 인터넷을 통한 도용
4. 목회현장에서의 설교 도용

IV. 연구 부정행위 판단의 근거

1. 프로그램을 이용한 검사법
2. 창의성과 독창성의 여부
3. 유사성의 정도

V. 연구 부정행위 예방법

1. 표절예방
2. 중복게재예방법
3. 올바른 인터넷 이용법

VI. 결론 - 바람직한 연구윤리의 정착을 위한 제언

* 본 연구는 숭실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이 논문은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1차 연구윤리포럼(2009. 9. 18)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논문임.

• ABSTRACT •

This paper surveys the various types of research misconduct in Christian studies. We seek the realistic solution to prevent these mistakes. It is very important for researcher to teach properly conduct first-class research, to renounce the desirable research practices. Unethical research destroys the integrity of researcher from the ground and blocks academic development. This misconduct fosters society's distrust towards the researcher's group. Even more, it deteriorates the quality of our research and discredits our research internationally. This side effect results from unethical research and reflects poorly on the researcher themselves and their group.

Unethical research in Christian studies include plagiarism, duplicate publication, misuse of internet, misrepresentations other's sermon. There are several ways to figure out plagiarism. First, we can use a software program to inspect for plagiarism and check the word and phrase on line. Second, we can figure out the degree of speciality and creativity of writing. And we also can judge plagiarism by the degree of similar between writing and original copy.

To prevent these problems all researchers must conduct moral and fair research. All researchers should have high moral character to protect himself and his group in his research. Before the problem of plagiarism arises, we must prepare object to refute claims of plagiarism. We must learn to correctly quote other authors. The basic rule of quotation is honesty and integrity. If we cite other's ideas and words or writing, we must attach quotation marks to ensure everyone notices. The internet is very useful and easy way to write. But we must carefully use the internet. We must use a trustworthy source. If we use and copy some idea and writing from on-line, we must announce the original source of internet. Therefore, if we use other's special idea and reference from other's writing we must make clear original source in a consistent way.

The goal of Christian study is to glorify God and to serve our neighbor. If we conceive this purpose, we must not continue making mistakes. We must reveal the truth and to do our best writing for true communication and reconciliation. Through good influence of writing, we can make our world full of happy and peace.

Key words : Research Misconduct, Christian Studies, Plagiarism, Duplicate Publication, Integrity

I. 서론

최근 학자들 간에 연구경쟁이 심화되면서 이론, 데이터 혹은 연구 결과물 등에 대한 위조, 변조, 표절 등과 연관된 연구 부정행위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¹⁾ 2005년 황우석 교수의 배아줄기세포 실험 데이터 조작 사건이 대표적인 예로서 한국 생명공학연구의 발목을 잡는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연구 부정행위는 학술 연구자들이 잘못인줄 알면서도 일종의 관행처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도덕불감증이 원인이지만, 실적을 강조하는 연구풍토로 인한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황우석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는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되었고 한국 연구윤리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기폭제가 되었다. 이를 계기로 각 대학에서는 연구윤리관련 세미나를 열게 되었고, 학계에서는 각 학회마다 연구윤리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실제적인 계기가 되었다.²⁾

그런데 연구윤리가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강화됨에도 불구하고 연구윤리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확산되지 못해 연구 부정행위가 종종 일어나기도 한다. 전문적인 학술활동을 하는 교수들이나 전문적인 연구원들에게는 이미 연구윤리가 충분히 인식되고 연구윤리의 중요성이 확산되었지만 이제 학문연구에 들어서는 대학원생들이나 학부생들에게는 연구윤리가 아직까지 충분히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기독교 학문과 연관된 연구윤리는 아직도 초보단계에 있다.

기독교 학문은 인문학적 학술연구에서 출발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적용되는 실천적인 영역으로 본다면 외연이 넓은 학문분야라고 할 수

1) 김병준 전 교육부 총리의 논문 중복게재가 논란이 되었으며, 고대 이필상 총장은 표절논란으로 총장 취임 56일 만에 총장직을 사퇴하게 되었다.

2) 이인재 교수는 연구윤리를 “연구자가 정직하고 정확하며, 성실한 태도로 바랍직하고 책임 있는 연구(responsible research)를 수행하기 위해 지켜야 할 윤리적 원칙”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인재,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인용과 표절의 이해」, 『윤리연구』 66호, 2007, 4.

있다. 기독교 학문은 학술연구를 넘어 설교라는 실천적 영역으로 확장된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한다면 기독교 학문연구에 있어서 올바른 연구윤리에 대한 실제적인 교육 및 연구윤리지침에 대한 안내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된다.

기독교 학문연구에 있어서 올바른 연구윤리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들과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연구윤리와 관련된 여러 지침들을 인식시키면서 연구윤리의 중요성을 확산시키고, 올바른 연구윤리 방법론들을 체계적으로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소고에서는 기독교 학문연구에 있어서의 연구 부정행위의 여러 유형들을 살펴보면서 연구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실제적인 지침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학문연구의 근간이 되는 연구의 진실성을 무너뜨리는 원인과 문제점을 고찰하면서 논문의 표절, 중복게재, 인터넷을 통한 도용, 목회현장에서의 설교도용 등과 같은 기독교 학문연구에서의 대표적인 연구 부정행위들의 여러 유형들을 검토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들을 모색하면서 바람직한 연구윤리의 정착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II. 연구윤리와 연구의 진실성

연구자들은 참여자 선정과 과제, 통제, 다양한 자료의 정의와 평가 등과 같은 많은 결정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결정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연구윤리가 포함된다.³⁾ 연구윤리는 연구자가 책임 있고 진실하게 연구를

3) 연구계획은 윤리적 평가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연구에서의 윤리적 관심은 연구수행과정에서의 진실성과 관계된다. A. M. Graziand & M. L. Raulin, *Research Methods* (Needham Heights : Allyn & Bacon Company, 2000), 64.

수행하기 위해 지켜야 할 윤리적 원칙 또는 연구자로서의 바람직한 행동양식을 의미한다. 넓은 의미에서의 연구윤리는 연구 수행 전반에 대한 전문적 윤리를 의미하며, 좁은 의미에서의 연구윤리는 연구 부정행위(research misconduct) 방지를 중심으로 한 연구의 진실성확립을 위한 윤리를 의미한다.⁴⁾

오늘날 연구 환경은 급속도로 변모하고 있다. 대학이나 연구소에서는 연구자들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고액의 연봉과 성과급 그리고 승진, 탁월한 연구 성과에 상응하는 명예를 제공한다.⁵⁾ 그리하여 연구자들은 연구성과를 올리기 위해 부정적인 수단이나 방법을 동원하면서 자신의 연구를 화려하게 포장하기도 하고 남의 연구자료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위장하기도 한다. 또한 자신의 연구를 이중으로 게재하여 연구실적물을 부풀리기도 한다. 이는 모두 창의적인 연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고통스러운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쉽게 연구업적을 인정받으려는 잘못된 욕망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특히 학술연구는 전문적인 연구자들 외에 일반인들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독립된 영역이다. 학술연구자들이 연구과정에서 연구의 진실성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는지, 연구 결과를 출판하고 보고하는 과정에서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은 쉽지 않다. 따라서 연구자가 주의하지 않으면 쉽게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 그리하여 자신의 논지와 부합하는 자료들만을 의도적으로 편향되게 선별하여 논문을

4) 최경석, 「생명윤리와 연구윤리」, 『사고와 표현』 제2집 제1호, 한국사외표현학회, 2009, 5, 181.

5) 폴 프리드먼(P. J. Friedman)은 오늘날 투자효율의 극대화와 경제적 이익의 최대화를 선호하는 연구 지원기관들이 연구자들의 경쟁을 지나치게 유발시키기 때문에 단순한 과실이나 착오를 넘어 의도적인 연구 부정행위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경고하였다. 김진, 「과학 및 공학과 윤리의 만남」, 김진 외, 『공학윤리』(서울: 철학과현실사, 2003), 30.

쓰거나, 다른 이가 주장한 여러 자료들을 짜깁기하거나, 또는 자신의 주장을 논증하기 위해 자료들을 위조하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⁶⁾

대표적인 연구 부정행위는 의도적으로 자료를 조작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나 용어나 주장을 표절하는 경우이다. 이는 연구성과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나 연구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으로 인해 연구를 서두를 때 종종 발생하게 된다. 또한 연구결과물을 늘리기 위해서 수준 이하의 연구를 진행하였음에도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나 글을 정당한 인용 없이 도용하는 잘못을 범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연구 부정행위들은 심각한 윤리적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부정행위들은 학문의 진실성을 근본에서부터 무너뜨리면서 학문의 발전을 저해할 뿐 아니라 연구자들에 대한 사회 전반의 불신을 조장하는 계기가 된다. 또한 국내 학술연구의 질적 수준을 떨어뜨리고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지 못하는 부작용을 낳는다. 결국 이로 인한 부작용과 피해는 연구자 자신들과 그가 속한 연구 공동체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으며 국가적으로 큰 손실과 타격을 입히는 요인이 된다.⁷⁾

연구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다.⁸⁾ 학술 연구자 스스로 연구 부정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명예서약을 하도록 하고⁹⁾, 연구 윤리와 관련된 강좌를 개설하여 연구윤리의 중요성을 환기시키

6) 만약 연구자가 무지의 결과로 잘못하였다면 가능한 한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과실여부를 가려내어야 한다. 또한 연구자의 부주의나 태만으로 인해 연구부정이 행해졌다면 실책에 대한 징계나 처벌이 주어지게 된다.

7) 한 개인의 연구는 연구자 개인을 넘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파급효과가 있다. 만약 연구가 잘못 수행된다면 학문적 가치가 없어지게 되며, 결국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빚게 된다. A. M. Graziand & M. L. Raulin, *Research Methods*, 67.

8) 연구자들에게 요구되는 세 가지의 윤리적 원칙이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되는데, 인격존중 (Respect for Persons), 선행(Beneficence), 정의(Justice)의 원칙이다. A. S. Devlin, *Research Methods* (Belmont, Thomson & Wadsworth, 2006), 153.

9) 미국의 일부 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명예 서약(honor codes)제도는 학생들로 하여금 대학 생활 전반에 걸쳐 정직하게 행동하고 서로를 모니터링하며 위반행위를 발견했을 때,

기도 하며, 적극적으로는 표절검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연구 부정행위를 적발하여 징계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 부정행위는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다.

연구윤리에서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과제는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연구의 진실성은 연구자의 진실성과 연구행위의 과정과 절차 그리고 그 결과의 진실성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진실성(integrity)은 연구자에게 꼭 필요한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만약 연구자가 정직하지 못하다면 그의 연구는 신뢰성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연구자의 인격에서 정직성은 최고의 가치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¹⁰⁾

특히 기독교 학문은 정직과 진실을 최고의 가치기준으로 하고 있다. 기독교 학문의 진정한 목적은 참 진리를 탐구하고 그 진리를 통해 우리의 실제 삶을 풍요롭고 유익하게 만드는데 있다. 따라서 바람직한 학문연구의 목적은 연구자 개인의 지적인 호기심을 만족시키거나 연구를 통해 얻게 될 개인적인 이익을 넘어서 참 진리를 드러내고, 이웃과 사회, 더 나아가 인류 공동체를 발전시키고 삶의 질을 풍요롭게 고양시키는 데 있다.

그러한 사실을 보고하겠다고 서약하는 것이다. 학생들에게는 정직한 연구 활동의 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료의 부정행위를 모니터하고 보고할 책임도 뒤따른다. 명예 서약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면 명예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되는데, 학생들이 주축이 되는 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교수와 교직원도 참여하는 위원회도 있다. 명예서약은 부정행위를 단속하거나 감시와 처벌을 통해 부정행위의 의욕 자체를 억제할 뿐 아니라, 그러한 목적을 뛰어넘어 더 많은 효력을 발휘한다. Charles Lipson, *Doing Honest Work In College* (김형주·이정아, 『정직한 글쓰기』(서울: 멘토로, 2008), 58-60.

10) 레스닉(Resnik)은 열두 가지 과학의 윤리적 원칙을 제시하면서 첫 번째로 정직성(honesty)을 강조하였다. 과학자는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조작, 위조 또는 왜곡하지 말아야 하며 모든 연구과정에서 객관적이고 정직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김환석, 「과학기술 시대의 연구윤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과학연구윤리』(서울: 당대, 2001), 28. 조용훈도 연구윤리의 핵심과제를 연구자의 지적 정직성(integrity) 형성에 두었다. 조용훈, 「연구윤리의 방법론에 대한 기독교윤리적 고찰」, 『신학사상』(한국신학연구소, 2008년 여름), 172. 연구에서의 정직성은 신뢰성을 담보로 한다. 신뢰성은 자료가 결과의 일관성 및 불변성으로 규정된다. 신규철, 『연구방법론의 이해』(서울: 한국문화사, 2002), 152.

III. 기독교 학문연구에서의 연구 부정행위의 유형

연구 부정행위는 연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고, 연구결과에 따른 성과의 분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고, 연구결과물이 미치는 결과적인 관점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¹¹⁾

기독교 학문연구에서의 대표적인 연구 부정행위는 표절, 중복게재, 인터넷을 통한 도용, 설교도용 등이 있다. 이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연구 부정행위는 표절로서 연구과정에서 다른 연구자의 연구결과물이나 자료들을 사용하면서 종종 발생하게 된다.¹²⁾

1. 표절

표절(plagiarism, 剽竊)은 이미 발표된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나 논리, 고유용어, 데이터, 분석체계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이다.¹³⁾ 표절은 다른 사람이 공들여서 이루어 놓은 연구 업적을 이용

11) 과학연구의 윤리적 쟁점들은 연구에서의 진실성문제, 논문 발표 시 저자표시 및 공로배분의 문제, 연구실 내에서의 권위 및 차별문제, 특정 대상이나 연구방법을 포함한 연구의 문제,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 등과 같은 문제들이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소, 『과학기술 연구 윤리 현황 및 사례』(대전: 두양사, 2006), 23-25.

12) 표절의 경우 표절당한 상대 연구자가 직접적인 피해자가 된다는 점에서 피해자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 최훈·신중섭, 「연구 부정행위와 연구 규범」, 『과학철학』(2007,10), 108. 정병기는 대학생들의 글쓰기 부정행위의 유형을 전문 도용과 공동과제물에 대한 무임승차, 자기 복제와 중복제출, 자료 위조, 자료 변조, 표절과 짜깁기 등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그 실태와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정병기, 「대학생 글쓰기의 부정행위와 윤리 교육방안」, 『사고와 표현』, 한국사고와표현학회 창간호,(2008년 11월), 270-285.

13) 표절과 유사한 개념으로는 패러디, 패스티시, 오마주 등이 있다. 패러디(parody)는 원작을 이용하여 원작이나 사회적 상황에 대해 비평하거나 웃음을 이끌어내는 비평적 모방이라 할 수 있다. 패스티시(pastiche)는 다른 작의 작품을 거의 변형 없이 원작을 차용하는 행위로서 원작과의 유사성을 모방하여 전략적인 담론효과를 끌어내기 위한 전략이다. 오마주(homage)는 영화에서 존경의 표시로 다른 작품의 주요 장면이나 대사를 인용하는 것으로서 존경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패러디나 표절과는 차이가 있다. 정진권·유충권, 「표절과 저작권, 무엇이 다른가」,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2007), 657-659.

하면서도 아무런 언급 없이 자신의 것인 것처럼 위장하기 때문에 부도덕한 행위일 뿐 아니라 다른 이의 지적 소유권을 훔치는 행위로 간주된다. 그러므로 표절은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의욕을 꺾고 독창적인 연구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기 때문에” 심각한 도덕적 문제점을 지닌다.¹⁴⁾

표절과 유사한 개념으로는 날조와 변조 등이 있다. 날조(위조, fabrication)는 있지도 않은 데이터나 실험 결과를 거짓으로 만들어 제출하는 행위이며, 변조(falsification)는 연구 자료나 장비 혹은 과정을 조작하거나, 실험 방법에서 데이터 분석까지 실험의 여러 측면들 중 일부를 의도적으로 조작해 그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이다.

학술활동의 진정한 목적은 기존의 논문이나 저서에서 이미 언급된 내용을 기초로 하여 그러한 논의를 더욱 발전시키면서 보다 새롭고 창의적인 연구결과물을 내어놓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소는 “적절한 인용과 창의적인 내용”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¹⁵⁾ 따라서 자신만의 독창적이고도 논리 정연한 논의를 전개할 때에 다른 연구자의 아이디어와 주장을 참고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다른 연구자의 아이디어와 주장을 활용하면서도 그에 대한 적절한 인용을 하지 않고 마치 자신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주장인 것처럼 속인다면 이는 분명 도덕적으로 심각한 잘못을 범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표절은 남의 연구결과를 사용하면서도 “적절하게 인용을 하지 않고 원 저작물 속에 있는 정보나 아이디어 혹은 어구를 따와서 자신의 것인 척하는 속임수, 훔치는 행위”를 의미한다.¹⁶⁾ 표절은 결과적으로 표절을 한 자

14) 이인재,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인용과 표절의 이해」, 5. 지식과 정보가 부가가치의 생산과 직결되는 지식기반사회에서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표절하는 것은 타인의 개인적 이익을 해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사회전체의 문화와 과학의 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에 금지되고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정상조, 「창작과 표절의 구별기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2003), 107 참고.

15) 이인재,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인용과 표절의 이해」, 9-10.

신 뿐 아니라 원 저작자에게도 피해를 주며, 더 나아가 창의성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하는 학문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릴 뿐 아니라 학문의 발전을 가로막는 결과를 빚게 된다.¹⁷⁾

표절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보다 쉽게 연구업적을 내고 인정받으려는 연구자의 비양심적인 태도에서 기인하게 된다.¹⁸⁾ 한때 표절은 관행으로 인식되어 그다지 문제 삼지 않고 관용으로 넘어가기도 했었다.¹⁹⁾ 또한 표절시비가 제기될 때마다 표절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기에 표절시비로 인해 애매하게 곤혹을 치르는 경우가 있었고, 어떤 이들은 이를 이용하여 교묘하게 빠져나갈 수도 있었다.²⁰⁾

그러나 표절은 더 이상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심각한 연구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표절에 대해서 주의해야 하며, 표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높은 연구윤리의식을 갖고 표절의 유혹을 물리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중복게재(redundant / duplicate publication)

중복게재는 자신의 동일한 연구물을 2곳 이상의 학술지 등에 중복해서 게재하거나, 본질적으로 동일한 자료(materials)나 연구가 한 개 이상의

16) Ibid., 8. 표절은 “남의 것을 훔치고 도둑질한다”는 의미를 지니는데, 저작권침해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표절은 원저자의 승인이나 원저자의 저작물이라는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지적 소유물을 마치 자신의 것으로 도용하는 행위이므로 저작권법에 저촉된다.

17) Ibid., 10.

18) Ibid.

19) 이인제는 표절에 대한 이러한 관용적인 태도는 학문적인 겸손을 강조하는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았다. 즉, 이러한 풍토가 남의 것을 함부로 베끼거나 남이 나의 것을 무단으로 전재해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할 수 없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 표절에 대한 죄의식을 흐리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Ibid.

20) 표절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표절에 대한 엄정한 판단기준이 확립되어 엄격하게 적용된다면 표절시비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발표지에 중복되어 출판되는 경우를 말한다.²¹⁾ 이인재에 따르면 “중복게재는 자기표절의 한 유형으로서 처음 게재한 학술지 편집인의 허락 없이 혹은 출처에 대한 언급 없이 동일 논문 또는 가설, 자료, 방법론, 논점, 결론 등에서 상당 부분 겹치는 논문을 2개 이상의 학술지”에 중복해서 게재하는 경우로 정의했다.²²⁾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별 다른 노력 없이 단기간에 자신의 연구업적을 의도적으로 늘리기 위해서 주로 사용되었던 방법들이다. 그동안 중복게재는 표절과는 달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며, 그러한 사실을 발견했을 경우에도 일종의 관행처럼 여겨 묵인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중복게재는 자신의 연구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자신의 양심을 속이는 부도덕한 행위일 뿐 아니라 자신의 연구물을 게재하는 학술지나 학술연구단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문제시된다.²³⁾ 따라서 연구의 진실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중복게재의 위험성을 알고 유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은 중복게재에 해당하는 유형들이다.²⁴⁾

21) Ibid., 13. 자기표절은 자신의 이전 연구물을 적절한 인용부호 없이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다. 이중게재는 자료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 뿐 아니라 연구자의 윤리성을 의심하게 될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가능한 게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미 게재된 논문을 진집에 다시 실을 경우에는 이중게재는 허용된다. 이때 재출판된 저작물 안에 최초 출판된 것에 대한 우선권을 명시하고, 최초 저작자로부터 허락을 얻고, 재판 저작물의 편집자나 출판업자가 이미 출판된 것을 완전히 알고 있는 경우 다른 언어로 번역될 수 있다.

22) 이인재, 「중복게재의 문제점과 연구윤리의 정립 방안」, 『한국철학논집』 26집, 2009, 306.

23) 이인재,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인용과 표절의 이해」, 9 참고. 이인재는 중복게재의 윤리적 문제점을 “학문적 부정행위로 간주하는 표절과는 달리 연구 부정행위에 속하지는 않지만 저작물을 출판할 때 지켜야 할 일종의 출판윤리를 위반한 연구부적절행위”라고 규정하였다. 이인재, 「중복게재의 문제점과 연구윤리의 정립 방안」, 308.

24) 교수신문, 2006. 9. 6. 이인재,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인용과 표절의 이해」, 15 재인용; 이인재, 「중복게재의 문제점과 연구윤리의 정립 방안」, 310-312.

첫째, 이중게재논문-동일한 논문을 2개의 다른 학술지에 게재하는 경우와 국내 학술지에 발표한 동일한 논문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해외 학술지에 게재하는 경우

둘째, 쪼갬 논문(토막논문, fragmented publication/salami-slicing publication) -하나의 연구를 수행한 후 일부분만 다른 여러 개의 논문으로 쪼갬 후 여러 학술지에 게재하는 경우이다. 살라미 기법은 하나의 저작물로 발표해야 할 내용을 최소 출판 단위로 잘라 각각을 하나로 논문으로 출판하는 것이다.

셋째, 덧붙인 논문(imalas publication) -이미 출판된 자료에 다른 자료를 추가하여 같은 결론의 논문으로 출판하는 경우를 말하며 살라미 기법과 반대된다.

넷째, 유사주제논문(substantially similar) -연구방법, 연구 대상, 연구구조와 내용, 논의와 결론 등에서 이전의 논문과 유사한 주제의 논문을 여러 학술지에 게재하는 경우

다섯째, 이란성 쌍생아 논문-동일한 연구 틀을 사용하면서 자료만 바꾸어 새로운 논문으로 게재하는 이란성 쌍생아 논문 등이 있다.

전문적인 학술 영역이 다양하고 각 학문의 특성이 매우 특수하며, 자신의 이전 논문을 활용하는 것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기에 중복게재의 판단기준이 모호한 경우도 많으며, 중복게재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그러나 논문에서의 핵심주장이 거의 일치하거나 이전의 논문과 비교하여 새롭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주장이 거의 없는 경우, 또한 이전의 저작물을 그대로 인용하면서도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중복게재에 해당된다.²⁵⁾

25) 중복게재는 자신의 연구결과물이라도 올바르게 인용하지 않아 발생하게 된다. 중복게재는 자기 표절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연구 결과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사용하면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마치 새로운 주장이나 아이디어인 것처럼 위장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중복게재의 시비를 피하려면 자신의 저작물이라도 다른 이의 저작물과 동일한 방법으로 올바른 인용법을 사용해야 한다. 이전에 논문으로 발간되어 공표되었던 자료를 다시 사용할 경우 자신의 저작물이라도 정당한 인용절차를 거쳐야 한다. 연구자 스스로 중복게재의 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인터넷을 통한 도용

인터넷은 정보통신혁명이 가져온 혜택이다. 검색엔진을 통해 자신이 찾고자 하는 유용한 정보를 쉽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해 자료를 조작하는 것이 더욱 간편하고 쉬워졌다. 방대한 원문을 직접 읽을 필요 없이 간략하게 핵심만 요약된 정보나 리포트, 논문 등과 같은 자료들을 온라인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빈번하게 부정직한 유혹으로 빠질 수 있다.²⁶⁾

최근 U. S. News and World Report의 조사에 따르면 1900년대 중반에는 학생 중 20% 정도가 표절 사실을 시인했는데, 2002년에는 50%로 두드러지게 증가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²⁷⁾ 또한 노던 일리노이대의 징계위원회에 보고된 표절 의심 사례는 2006~2007년 140여 건에서 2007~2008년 206건으로 늘어났다.²⁸⁾ 이러한 추세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인터넷의

26) 인터넷을 통해 과제나 논문 등을 사거나 파는 행위가 점점 성행하고 있다. 리포트뱅크나 네이버 사이트가 그 대표적인 경우이다. 정병기, 「대학생 글쓰기의 부정행위와 윤리 교육 방안」, 한국사고와표현학회, 『사고와 표현』(창간호 2008. 11), 284.

27) Heping Zhao, "Honestly, What's the Fuss about Plagiarism as Academic Dishonesty?", 한국사고와표현학회 제6회 학술대회자료집(2009. 7), 91-92.

28) 동아일보 2009. 7. 3. Plagiarism.org 웹사이트가 보고한 다음의 사실들은 연구부정으로 인한 학술적인 위기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져있는지를 잘 드러내는 실례가 된다. 학술진실성센터는 대학생들 중 80%가 한번 정도는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심리학보고서의 연구에 따르면, 대학원생들 중 36%가 표절을 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Ibid., 84.

존도의 증가에 따라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인터넷 상에서 논문이나 리포트를 구매한 후 그 내용을 수정 보완해서 내는 경우, 이는 본래 자신의 글이 아니므로 부정행위에 해당된다.²⁹⁾ 따라서 연구자는 인터넷을 올바른 방법으로 이용해야 하며, 남의 글이나 논문을 이용했을 경우 정당한 인용절차를 거쳐서 분명한 출처를 밝혀야 한다.

4. 목회현장에서의 설교 도용

목회현장에서는 남의 설교를 도용하는 경우가 많다.³⁰⁾ 한국의 목회자들은 지나치게 많은 설교나 심방으로 인해 늘 설교준비에 쫓기게 된다. 서점에는 설교집 시리즈가 즐비하며, 심지어는 설교를 공급하는 업체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목회자들은 말씀 앞에서의 깊은 묵상과 성실한 땀과 수고의 과정을 거쳐 한편의 설교를 완성하려고 하기 보다는 설교 준비에 효율성을 제공하는 설교자료나 다른 이의 설교집을 통해 설교를 준비하려는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다. 그리하여 목회자들은 남의 설교집이나 인터넷 상의 설교를 그대로 도용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설교자의 핵심 아이디어나 설교내용을 자신의 것인 양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단차원에서 목회자 강령을 마련해서 목회자 스스로 설교문 도용을 피하도록 유도하고, 목회자 재교육을 통해서 성실과 땀으로 준비된 충실한 설교를 준비하도록 교육하고, 자율적 정화기능을 갖추도록 하여 목회자들 스스로 부정직한 행위에 노출되

29) 다른 사람의 논문이나 리포트를 베껴서 내는 경우도 동일한 연구 부정행위이다.

30) 한국교회의 설교도용의 심각성과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는 김금용, 「한국교회의 설교도용에 대한 한 연구」, 기독교사회윤리학회, 『기독교사회윤리』 14집(서울: 선학사, 2007), 127

-150을 참고하시오.

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IV. 연구 부정행위 판단의 근거

연구 부정행위를 적발하는 것은 쉽지 않다. 또한 연구의 수행방법이나 절차나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연구 부정행위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꾸준한 사례축적과 상호 간의 정보 교환, 활발한 토론과 합의 등을 통해 연구 부정행위를 분석하고 판단해야 한다.

1. 프로그램을 이용한 검사법

표절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표절검사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인터넷을 통한 부정행위를 적발하는 방법이 있다. 표절로 의심되는 문장이나 절을 표절 검사 프로그램이나 인터넷 검색 서비스에 입력해서 검색해 보면 표절여부를 알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대학뿐 아니라 고등학교에서도 iParadigms 사의 Turnitin 프로그램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³¹⁾ 또한 일본에서는 지적재산과학연구센터의 스키미쓰 가즈나리 교수가 개발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영국정보시스템합동위원회(JISC)가 2002년부터 표절방지 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³²⁾ 이런 종류의 서비스는 다양한 자료와 비교, 검토하는 방식으로 표절 여부를 매우 효율적으로 가려낼 수 있다.³³⁾ 그러나 IT 강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는 아직

31) Turnitin 프로그램은 미국 내 3000여 개 대학 등 전 세계 약 9,000개 대학이 도입하고 운영하고 있다.

32) 정병기, 「대학생 글쓰기의 부정행위와 윤리 교육방안」, 283.

표절검사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않고 있다. 조만간 우리 실정에 맞는 표절 검사 프로그램이 개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대학의 표절에 대한 처벌은 엄격하며 다음과 같이 그 의도성과 정도에 따라 다양하다.³⁴⁾ 표절에 대해 잘 몰라 실수로 행한 경우에는 공식적인 경고(Formal Warning), 표절이 실수로 행해졌다고 해도 정도가 조금 심한 경우에는 성적 감점, 의도적으로 표절했거나 수정 지시를 어겼을 경우에는 근신(Probation), 표절로 경고를 받고서도 다시 표절이 발각되었을 경우에는 지도성 제재(Disciplinary Sanction), 실질적인 반성유도를 위해 추가로 다른 벌칙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회봉사(Community Service), 졸업이 임박해 마땅한 다른 처벌이 없을 경우에 졸업 지연(Delay of Degree Conferral), 두 과목 연속 표절 등 의도적으로 표절을 심하게 했을 경우에는 정학(Suspension), 표절을 의도적으로 숨기기 위해 증거자료를 조작하는 등 심각할 경우에는 퇴학(Expulsion), 졸업 이후 학위논문에서 심한 표절이 밝혀진 경우에는 학위취소(Revocation of Degree) 등이 있다.

2. 창의성과 독창성의 여부

표절여부의 판단 기준 중 하나는 독창성과 창의성의 여부로 판단가능하다.³⁵⁾ 논문 속에 저자만의 독창성과 창의성이 배어난 결과물이 남의

33) <http://www.turnitin.com>과 <http://www.ithenticate.com> 등이 대표적인 사이트들이다. 조제희, 「글쓰기 부정행위에 관한 처벌 규정과 사례-미국 대학들을 중심으로」, 한국사고와표현학회 제6회 학술대회자료집. (2009. 7). 64.

34) 동아일보, 2009. 7. 3. 조제희는 가장 징계인 학위취소의 사례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2002년 11월 버지니아대학교에서 졸업생 중 3명의 학위가 취소되었다. 또한 오하이오 대학교에서도 졸업생 중 한 명이 학위를 취소당했으며, 앨라배마대학교에서도 1997년도에 수여했던 박사학위를 1998년 지도교수의 요구에 의해 취소했으며, 1990년 테네시대학교에서도 지도교수가 공동 집필하여 작성한 보고서의 내용과 일치한다고 밝혀져 철학박사 학위를 취소당했다.” Ibid., 68-73.

글보다 많다면 표절의혹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러나 논문이나 글 속에서 저자만의 독특하고 창의적인 글을 찾아보기 어렵다면 표절 가능성이 많다고 할 수 있다.

3. 유사성의 정도

표절판단을 함에 있어서 표절논란이 되고 있는 원 저작과 유사성의 정도를 기준으로 표절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인재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표절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다.³⁶⁾

- ① 원전을 밝히든 밝히지 않았든 상관없이 남의 글이나 아이디어가 글의 대다수를 차지할 때
- ② 긴 논문에서 부분적으로 발췌하거나 짜깁기(mosaic)한 경우, 즉 원 저작물에 있는 단어나 아이디어를 인용표시 없이 자신의 단어나 아이디어와 섞거나, 여러 원 저작물에서 인용표시 없이 따온 단어나 아이디어를 합치거나, 적절하게 인용한 것과 인용하지 않는 부분을 섞은 경우
- ③ 저자가 가장 많이 인용한 참고문헌의 서지사항을 통째로 누락시킨 경우
- ④ 특정 저자의 고유한 개념을 다른 개념으로 바꾸어 사용하면서 자신만의 독창적 개념으로 주장한 경우(개념 표절)
- ⑤ 2차 문헌에 의존했으면서도 1차 문헌을 참고한 것처럼 가장한 경우
- ⑥ 한 논문에서 근간을 이루는 논리구조 및 분석 체계의 형식이 다른 논문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경우
- ⑦ 출판되지 않은 다른 사람의 지적 재산을 사용하거나 제자나 석, 박사 학생들의 논문이나 보고서를 일부 수정하거나 그대로 또는 종합하여 단행본으로 발간하거나 논문으로 발표하는 경우

35) 이인재,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인용과 표절의 이해」, 16 참고.

36) Ibid., 13-14.

일반인들이 쉽게 접하는 대중문화계에서는 일반인들에 의해 표절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지만 전문적인 학술계에서는 표절 논란이 학술연구자들에 의해서만 제기된다. 이는 학술영역이 전문적인 학술연구자 집단에 제한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평소에는 문제없이 넘어가다가, 교수 임용이나 보직 배정, 또는 교수 집단 간의 갈등이나 알력이 심화될 경우, 투서나 제보 형식으로 표절의혹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다. 표절의혹이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하는 효과적인 무기로 둔갑해 버리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표절의혹을 받는 당사자 뿐 아니라 표절의혹을 제기한 고발자도 도덕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학술활동이 진행되도록 해야 하며, 표절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연구자 스스로 높은 도덕적 성품을 지니고 학술활동에 임해야 한다. 또한 표절의혹이 제기될 경우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근거하여 표절여부를 가릴 수 있는 합리적인 표절판단기준을 확립하여야 한다.

V. 연구 부정행위 예방법

학문의 근본목적은 진리를 탐구하고 수호하는 데 있다. 그런 점에서 연구 부정행위는 학문의 근본목적과 상반되는 부도덕한 행위이며 범죄임에 틀림없다.³⁷⁾ 연구 부정행위를 사후에 적발하여 시정하도록 하거나 징계와 같은 제재장치를 마련하고 규제를 보다 강화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이보다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예방법은 바람직한 연구환경을 조성하는 것과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교육이다.³⁸⁾ 이러한 교육을 통해

37) 연구자들에게는 특정한 윤리적 가이드라인이 요청되는데, 이는 연구자뿐 아니라 피실험자들도 함께 보호하기 위함이다. Devlin, A. S., *Research Methods*, 148.

연구자의 바람직한 자세 및 가치관을 함양시키고, 연구윤리의 기준 및 내용을 연구자들에게 인식시켜 바람직한 연구수행환경을 마련할 수 있다.

1. 표절예방

학술연구자들에게 있어서 글은 자신의 학술연구가 고스란히 배어든 땀과 노력의 결정체임과 동시에 인격의 척도가 된다. 따라서 자신이 쓴 글은 정직해야 할 뿐 아니라 투명해야 하며,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먼저 표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인용법을 익혀야 한다. 올바른 인용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타인의 연구 결과물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학문 발전에서 과거와 현재 및 미래를 이어주는 긍정적인 가교역할을 수행한다.³⁹⁾

인용의 기본규칙은 솔직함과 정직함에 있다. 만약 다른 연구자의 글을 인용할 경우 인용 부호를 붙이거나 문단을 바꿔 들여쓰기를 함으로써 인용문임을 분명하게 표시하고 출처 또한 밝혀야 한다.⁴⁰⁾ 직접 인용문일 경우 인용 부호를 붙이고 전체 문장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다른 연구자의 말을 쉽게 풀어서 사용할 경우에는 원문과 비슷한 표현으로 하지 말고 자신만의 언어를 최대한 살려야 하며 이 경우에도 출처를 밝혀야 한다.⁴¹⁾

시카고 대학의 찰스 립슨(Charles Lipson)은 『정직한 글쓰기』에서 올바른 인용방법을 다음과 같은 예시를 들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⁴²⁾

38) 오선영은 연구윤리 교육에 관한 논의는 인문학적 성찰을 동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인간과 연구와 윤리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과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오선영, 「연구 윤리를 위한 교양 교육 방안 연구」, 『한국언어문학』 67집, 521 참고.

39) 이인재,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인용과 표절의 이해」, 8.

40) Charles Lipson, 『정직한 글쓰기』, 63.

41) Ibid., 63, 정보가 널리 알려져 모든 이들이 아는 경우 따로 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

42) Ibid., 74-76.

[원 문]

조 블로는 행복한 남자였다. 그는 길을 걸을 때에도 휘파람과 노래를 부르곤 했다.⁴³⁾

[올바른 인용법]

1. 전체 문장을 인용할 경우 : 한 문장을 통째로 인용할 때에는 문장 전체에 인용 부호를 표시하고, 문장의 끝에 주석을 달아 출처를 밝힌다.
- “조 블로는 행복한 남자였다. 길을 걸을 때에도 휘파람과 노래를 부르곤 했다.”^{각주번호}
2. 작가명을 곁들여 부분적으로 인용할 경우 : 한 문장의 일부를 인용할 때에는 인용한 부분에만 인용부호를 표시하고, 문장의 끝에 주석을 달아 출처를 밝힌다.
- 스크리브너에 따르면 블로는 “자주 휘파람을 곁들여 노래를 부르며 거리를 걷고 했다.”^{각주번호}
3. 원문의 일부를 그대로 인용하고 나머지는 표현을 바꾸는 경우 : 원문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바꾸어 표현한 경우에는 인용부호를 표시하지 않는다. 단, 원문을 모방하거나 원문의 의미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 스크리브너에 따르면 블로는 “행복한 남자”였다. 그가 콧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었다.^{각주번호}
원문과 동일한 곳은 따옴표를 사용하여 인용을 밝히고, 원문에 없는 “콧노래”는 인용자의 표현인 만큼 따옴표가 필요 없다.

43) 위의 인용예문은 제이 스크리브너(Jay Scrivener)의 『조 블로: 그의 생애와 시대(Joe Blow His Life and Times)』에 나오는 문장이다.

4. 원문에서 필요한 부분만 선택하여 인용할 경우 : 각각 나누어 인용 부호를 표시하고, 문장의 끝에 주석을 달아 출처를 밝힌다.
 - 조 블로는 “휘파람과 노래하는 것”을 즐기는 “행복한 남자”처럼 보였다.^{각주번호}

5. 원문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원문의 표현을 모두 바꾸어 표현하는 경우 : 인용 부호를 표시하지 않는다. 단, 원문을 모방하거나 원문의 의미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 조는 행복하게 보였고, 스스로 휘파람과 노래하는 것을 즐겼다.^{각주번호}

[잘못된 인용법]

1. 한 문장을 모두 인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용부호와 각주가 없는 경우 표절에 해당된다.
 - 조 블로는 행복한 남자였다. 길을 걸을 때에도 휘파람과 노래를 부르곤 했다.

2. 한 문장을 모두 인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용부호가 없다면 표절에 해당된다. 문장의 끝에 각주를 달아 출처를 밝혔다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 조 블로는 행복한 남자였는데, 휘파람과 노래를 부르면서 길을 걷곤 했다.^{각주번호}

3. 원문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바꾸어 표현했지만 원문의 표현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표절에 해당된다.
 - 조 블로는 행복한 남자였다. 그리고 노래를 부르며 휘파람을 불며 길을 걷곤 했다.

4. 한 문장의 일부를 인용했음에도 인용부호와 각주가 없으므로 표절에 해당된다. 조 블로가 행복한 남자라는 생각은 모두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사실이 아니라 스크리브너 개인의 생각이므로 인용부호와 각주가 필요하다.
 - 조 블로는 행복한 남자였다.

5. 일부 내용이 생략되어 있지만 한 문장을 거의 그대로 인용했음에도 인용부호와 각주가 없다면 표절에 해당된다.
 - 조 블로는 휘파람과 노래를 부르면서 길을 걷곤 했다.

6. 인용부호와 각주를 표시하여 인용문임을 밝혔지만 원문과 동일한 또 다른 부분에 인용부호가 없다면 표절에 해당된다.
 - 조 블로는 “행복한 남자”로 보였는데 휘파람과 노래를 부르면서 길을 걷곤 했다.^{각주번호}

7. 인용 부호와 각주를 표시하여 인용문임을 밝혔지만, 원문의 의미를 훼손하였다면 정확한 인용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는 표절이라기 보다는 연구자로서 신뢰받지 못할 행위가 된다.
 - “조 블로는 길을 걷곤 하는 불안한 남자였다.”^{각주번호}

8. 인용부호 안에 있는 구절은 원문과 동일하지만 인용부호 밖에 있는 구절은 원문의 의미를 훼손한 것이므로 잘못된 인용법이며 학문적 사기에 해당된다.
 - 조 블로는 매우 빠르게 “길을 걸었다”.

앞에서 제시된 것처럼 직접 인용한 내용은 반드시 인용 부호를 표시하고, 인용한 글의 출처는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⁴⁴⁾ 또한 참고한 내용을 문맥에 맞게 자신의 표현으로 수정하여 간접 인용한 경우에는 인용 부호를 붙일 필요는 없지만, 참고한 글의 출처는 반드시 밝혀야 한다. 이는 글쓴이가 어디에서 참고하고 인용했는지를 명확히 밝힘으로써 원 저자에게 학문적으로 도움 받았음을 정당하게 인정하고 그의 학문적 공헌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방법이 된다.

또한 원문을 쉽게 풀어쓰고자 할 경우에는 원문의 표현을 그대로 모방해서는 안 되며, 출처를 밝힌다고 해도 표절에 해당된다.⁴⁵⁾ 따라서 연구자들은 적절한 권한이 없이 타인의 저작을 광범위하게 풀어쓰는 것(paraphrasing)을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만일 풀어쓸 경우에는 각주를 달아서 풀어쓴 것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⁴⁶⁾ 만약 풀어쓰기를 하면서 인용표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텍스트에 “○○의 주장에 따르면”, “○○가 주장한 바와 같이”라는 구절로 대치하고 인용각주로 처리하여야 한다.

2008년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학술진흥재단이 이인재 교수 연구팀에 의뢰하여 ‘인문·사회과학 분야 표절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기초 연구’라는 국가 수준의 표절 여부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었다.⁴⁷⁾ 이에 따르면

① 여섯 단어 이상의 연쇄 표현이 일치하는 경우

44) 한두 문장이상 길게 이어지는 경우에는 인용부호를 표시하기 보다는 독립된 단락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경우에도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한다. 독립된 단락으로 인용문을 처리하게 되면 표절의 의도가 전혀 없음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때문에 표절시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45) Charles Lipson, 『정직한 글쓰기』, 77.

46) 이인재,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인용과 표절의 이해」, 13.

47) “논문 쓰기의 실제, 인용과 표절 사이에서...” <http://www.sciencetimes.co.kr/article.do?todo=view&atidx=0000033247>, The Science Times, 2009. 8. 4(화), (검색일 2009. 9. 9.)

- ② 생각의 단위가 되는 명제 또는 데이터가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유사한 경우
- ③ 타인의 창작물을 자신의 것처럼 이용하는 경우 모두 표절로 판정할 수 있다.
- ④ 남의 표현이나 아이디어를 출처 표시 없이 가져다 쓰거나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현저한 짜깁기, 연구결과 조작,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높은 저작물의 경우에는 ‘중한 표절’로 분류해 파면 감봉 등 중징계를 당하게 된다.

또한 공유 영역에 속한 저작물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주요 내용의 자기 표절, 과거 저작물과 새로운 저작물을 구분하지 않은 중복 게재 등 경미한 표절은 경고 등 경징계에 처할 수 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과거의 논문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중한 표절의 경우에는 최대 5년까지 소급 적용해 징계할 수 있다.⁴⁸⁾

인용의 목적은 자신이 사용한 연구자료를 정확하게 밝혀서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다. 또한 다른 연구자들이 해당 자료를 찾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상세하고도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다른 연구자의 연구실적을 인용할 때는 해당 인용문을 정확하게 제시해야 하며, 인용하면서 그 내용을 왜곡하거나 논리적인 근거가 빈약한 부분만을 제시해서는 안 된다.⁴⁹⁾

48) 미국의 경우 박사학위 논문의 핵심적인 내용을 독립적인 논문의 형태로 만들어 학술지에 발표하는 것이 관행인 반면 독일의 경우에는 박사학위 논문을 독자적인 저서로 출간하는 것이 학계의 관행이므로 박사학위 일부를 다른 논문으로 학술지에 발표하는 것은 명백한 자기논문 복제 또는 자기표절에 해당된다. 이인재,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인용과 표절의 이해」, 20.

49) Charles Lipson, 『정직한 글쓰기』, 85. 올바른 인용법과 표기법은 연구자로 하여금 표절 시비로부터 자유롭게 할 뿐 아니라 자신의 연구와 다른 이의 연구 결과를 상호 비교하는 과정에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연구성과를 드러내는 방법이 된다.

2. 중복게제예방법

개인적 측면에서 중복게제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연구자 개인의 연구윤리의식이 고취되어야 한다. 따라서 비록 자신의 저작물이나 연구결과물을 사용하더라도 올바른 인용법을 숙지하여 명확하게 그 출처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⁵⁰⁾

사회제도적 측면에서는 학회나 대학 등의 학술지 발간 규정을 통해 중복게제를 방지하는 자체정화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3. 올바른 인터넷 이용법

인터넷 이용과 연관된 연구부정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상에서 수집한 정보의 출처를 상세히 조사해야 하며, 신뢰성 있는 자료들만을 선별적으로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⁵¹⁾ 또한 특정 자료를 인용하거나 참고할 때에는 일관된 체계로 자료의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따라서 인터넷 자료의 올바른 인용표기방식은 전체 페이지의 제목, 페이지의 URL, 그리고 페이지 작성자, 세부적 정보에서 날짜와 제목, 본인이 페이지를 방문한 날짜순으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⁵²⁾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는 여러 가지 이유로 자주 바뀌기 때문에 온라인상으로 정보를 접한 날짜도 함께

50) 이인재 교수는 다음의 경우는 중복게제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로 보았다. 첫째 자신의 학술 논문을 다른 독자들을 위해 일차 학술지 편집인과 이차 학술지 편집인 모두의 동의를 받아 출처를 밝히고 게재한 경우, 둘째, 최초 게재한 저작물의 출처를 밝힌 자신의 논문을 번역하여 다른 국가의 학술지에 신는 번역저작물의 경우, 셋째, 연구자가 자신의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논리와 이론 등을 심화·발전시켜 가는 연구과정에서 적절한 출처표시를 한 후속 저작물의 경우이다. 이인재, 「중복게제의 문제점과 연구윤리의 정립 방안」, 318.

51) 인터넷에는 정보가 쌍방향으로 흐르고 정보를 모니터링하는 감시자도 없으며 정보의 질을 보증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편집자도 없기 때문에 이용자 스스로 정보의 질을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논문을 쓸 때 인터넷을 참고할 경우 좀 더 포괄적인 배경지식이나 깊이 있는 전문지식과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Charles Lipson, 『정직한 글쓰기』, 27 참고.

52) 이인재,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인용과 표절의 이해」, 22.

기록해야 한다.

앞에서 제시한 내용들은 학문연구에서의 부정이나 잘못을 피하기 위한 예방법이다. 그러나 기독교 학문연구는 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글쓰기 윤리에 대한 보다 폭넓은 접근이 필요하다. 이상원은 “글쓰기 윤리에 대한 강조가 표절 방지, 그리고 이를 위한 정확한 인용법 교육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정확한 맞춤법과 띄어쓰기로 독자의 읽기에 불편을 주지 않는 것, 의도적인 스타일이 아닌 이상 혼란스러운 문장이나 문단 연결로 독자의 이해에 불편을 주지 않는 것, 제목이나 글의 목적을 바탕으로 독자가 기대한 바를 충족시키는 것 등등 보다 광범위한 측면”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⁵³⁾

학술적인 글쓰기는 효과적인 의사표현의 수단으로 비판적 분석과 창의적인 사고를 필요로 하며, 공동체의 윤리와 시민으로서의 덕성을 드러내는 수단이 된다.⁵⁴⁾ 특히 기독교 학문의 진정한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섬기는 데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연구부정을 범하지 않는 차원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참 진리를 드러내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 속에서 진정한 소통과 화해를 위한 매개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VI. 결 론 - 바람직한 연구윤리의 정착을 위한 제언

위에서 기독교 학문연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대표적인 부정행위들과 그러한 잘못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들을 고찰하여 보았다. 연구 부정행위

53) 이상원, 「함께 읽기와 동료비평을 통한 글쓰기 수업」, 한국사고와표현학회 제6회 학술대회자료집(2009. 7), 11.

54) 박현희, 「서울대학교 학문영역별 글쓰기 교과 운영현황과 ‘학문영역별 글쓰기 지도사례 웹서비스 콘텐츠’ 소개」, 한국사고와표현학회 제6회 학술대회자료집, 2009. 7, 36 참고.

들은 종종 무지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지적인 나태와 태만으로 인해 발생하게 된다. 기독교 학문연구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부정행위들은 표절과 중복게재이다. 이러한 부정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술연구자로서 철저한 자기반성과 엄격한 자기규제가 필요하다. 타율에 의한 규제 보다는 연구자 스스로 진실성을 갖고 학문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따로 출처를 밝히지 않는 한 자신이 직접 쓴 글로 간주되기 때문에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정직하고 진실한 글을 쓰도록 하고, 자신이 쓴 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창의적인 사고에서 밀바탕이 된 자신만의 독창적인 연구결과가 자신의 글에서 배어나도록 힘써야 한다.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사후검증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바람직한 연구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연구부정의 일차적 원인은 연구자 개인의 윤리의식 부재로 인한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도적인 면과 환경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연구기관의 자체검증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대학과 학술단체 및 연구소에서 자체적으로 진실한 연구자를 보호하고 소속 연구자가 행한 부정행위를 책임 있게 규명하기 위한 공평한 조사 절차 및 관련 규정 등의 시스템을 수시로 점검하고 공정한 검증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외부적인 감시와 규제도 필요하겠지만 연구기관이 자율적으로 책임 있는 검증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람직한 연구윤리의 확립은 학술연구자 한 개인의 정직성 뿐 아니라 학문을 하는 학술공동체 전 구성원 뿐 아니라 국가의 연구수준까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공정함과 진실성을 바탕으로 하는 위와 같은 원칙들은 연구윤리를 확립하는 근본적인 규칙들이다. 이러한 규칙들은 일면 너무 엄격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직

하고 진실한 연구자들을 보호하는 보호망이 될 뿐 아니라 공정하고 진실한 방향으로 인도하는 방향타가 된다.

따라서 책임 있는 학술 연구자의 진정한 자세는 자신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주장이 담긴 창의적인 연구를 위해 피나는 노력과 인내를 쏟아야 한다.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손쉬운 방법으로 연구를 양산하려고 서두르기 보다는 비록 더디고 고통스럽더라도 자신만의 독창적인 연구업적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학문연구는 고독한 자기와의 싸움의 기나긴 여정이다. 빠르고 쉽게 가는 것을 스스로 외면하고 비록 돌아가고 더디게 가더라도 바르고 올바른 정도를 걷는 것이 학문하는 자의 진정한 자세일 것이다. 학문에는 왕도가 없다는 말이 더욱 실감 있게 다가온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라고 노래한 윤동주의 서시는 모든 연구자들에게 연구의 진실성을 일깨우는 매우 귀중한 교훈을 던지는 시가 아닌가 생각된다. 잎새에 이는 작은 바람에도 괴로워할 수 있는 깨끗한 양심, 청결하고도 진실한 정직성은 오늘날 기독교학문 뿐 아니라 진리를 탐구하는 모든 연구자들에게 꼭 필요한 자질이라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 김진, 『과학 및 공학과 윤리의 만남』, 『공학윤리』, 서울: 철학과현실사, 2003.
- 김금용, 『한국교회의 설교도용에 대한 한 연구』,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기독교사회윤리』 14집, 서울: 선학사, 2007.
- 김환석, 『과학기술 시대의 연구윤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과학연구윤리』, 서울: 당대, 2001.
- 박현희, 『서울대학교 학문영역별 글쓰기 교과 운영현황과 ‘학문영역별 글쓰기 지도 사례 웹서비스 콘텐츠’ 소개』, 한국사고와표현학회 제6회 학술대회자료집, 2009. 7.
- 신규철, 『연구방법론의 이해』, 서울: 한국문화사, 2002.
- 오선영, 『연구 윤리를 위한 교양 교육 방안 연구』, 『한국언어문학』 67집.
- 이상원, 『함께 읽기와 동료비평을 통한 글쓰기 수업』, 한국사고와표현학회 제6회 학술대회자료집, 2009. 7.
- 이인재,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인용과 표절의 이해』, 『윤리연구』 66호, 2007.
- _____, 『중복게재의 문제점과 연구윤리의 정립 방안』, 『한국철학논집』 26집, 2009.
- 정상조, 『창작과 표절의 구별기준』, 『법학』,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 정진권 · 유충권, 『표절과 저작권, 무엇이 다른가』,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2007.
- 정병기, 『대학생 글쓰기의 부정행위와 윤리 교육방안』, 『사고와 표현』, 한국사고와표현학회 창간호, 2008. 11.
- 조용훈, 『연구윤리의 방법론에 대한 기독교윤리적 고찰』, 『신학사상』, 한국신학연구소, 2008년 여름.
- 조제희, 『글쓰기 부정행위에 관한 처벌 규정과 사례-미국 대학들을 중심으로』, 한국사고와표현학회 제6회 학술대회자료집, 2009. 7.
- 최경석, 『생명윤리와 연구윤리』, 『사고와 표현』 제2집 제1호, 한국사고와표현학회, 2009. 5.
- 최훈 · 신중섭, 『연구 부정행위와 연구 규범』, 『과학철학』, 2007. 10.
- 한국원자력연구소, 『과학기술 연구윤리 현황 및 사례』, 대전: 두양사, 2006.

Charles Lipson, *Doing Honest Work In College*. (김형주 · 이정아. 『정직한 글 쓰기』, 서울: 멘토로, 2008).

Devlin, A. S, *Research Methods*. Belmont: Thomson & Wadsworth, 2006.

Graziand, A. M. & Raulin, M. L. *Research Methods*. Needham Heights: Allyn & Bacon Company, 2000.

Heping Zhao. "Honestly, What's the Fuss about Plagiarism as Academic Dishonesty?". 한국사고외표현학회 제6회 학술대회자료집. 2009. 7.

동아일보 2009. 7. 3. The Science Times(<http://www.sciencetimes.co.kr/article.do?o-do=view&atidx=0000033247>)

논문투고일 : 2010. 04. 29

심사개시일 : 2010. 05. 12

게재확정일 : 2010. 05. 30

• 국 문 초 록 •

본 소고에서는 올바른 연구윤리에 대한 실제적인 교육 및 연구윤리지침에 대한 안내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면서 기독교 학문연구에 있어서의 연구부정행위의 여러 유형들을 살펴보면서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실제적인 지침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부정행위는 학문의 진실성을 근본에서부터 무너뜨리면서 학문의 발전을 저해할 뿐 아니라 학술 연구자들에 대한 사회 전반의 불신을 조장하는 계기가 된다. 이로 인한 피해는 연구자 자신들과 그가 속한 연구 공동체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기독교 학문연구에서의 대표적인 연구부정행위는 표절, 중복게재, 인터넷을 통한 도용, 설교도용 등이 있다. 이러한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학술활동이 진행되도록 힘써야 하며, 표절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연구자 스스로 높은 도덕적 성품을 지니고 학술활동에 임해야 한다.

표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인용법을 익혀야 한다. 인용의 기본규칙은 솔직함과 정직함에 있다. 만약 다른 연구자의 글을 인용할 경우 인용 부호를 붙이거나 문단을 바꿔 들여쓰기를 함으로써 인용문임을 분명하게 표시하고 출처 또한 밝혀야 한다. 인터넷 이용의 경우 온라인상에서 수집한 정보의 출처를 상세히 조사해야 하며, 신뢰성 있는 자료들만을 선별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또한 특정 자료를 인용하거나 참고할 때에는 일관된 체계로 자료의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기독교 학문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섬기는데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부정이나 잘못을 범하지 않는데서 머물 것이 아니라, 참 진리를 드러내고 진정한 소통과 화해를 위한 글쓰기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이 세상을 더욱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게 될 것이다.

주제어 : 연구부정행위, 기독교 학문, 표절, 중복게재, 진실성